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 90 여세 로전사와 함께 당학습



6월 28일, 중국공산당 창건 103돐에 즈음하여 길림출입경변방검사소 총소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는 통화변경관리지대와 연합하여 항미원조로전사 한명수(91세)를 집안도로통상구로 초청하여 주제당일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 30여명의 경찰과 경찰구역의 20여명의 교사, 학생대표가 참가했다.

오전 8시 정각, 로전사 한명수는 경찰들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아 집안도로통상구 검문소를 방문하여 이민관리경찰들의 현대화 근무 장비를 참관하고 편리하고 지능적인 통관 절차를 체험했다.

“지금은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장비도 선진적이다. 우리는 쉽지 않게 얻은 평화를 더욱 소중한 여기고 국경을 잘 지키며 인민을 잘 지켜야 한다!” 도로통상구 국문 안에 들어서면서 한명수는 이처럼 국가의 발전에 감탄하는 한편 경찰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로전사 한명수는 관광차를 타고 도로통상구 국문에서 ‘항미원조 제1도(抗美援朝第一渡)’로 미칭되는

압록강 국경 철도대교로 이동하면서 압록강 풍경을 관람했다.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는 〈중국인민지원군전가〉의 선물이 올라차에 타고 있던 경찰, 학생들은 로전사 한명수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익숙한 선물과 함께 지난 세월의 흔적들을 보노라



니 로전사 한명수의 눈가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였다.

로해에 따르면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선에 진출해 1950년 10월 25일에 첫번째 전투를 치렀다. 집안은 중국 항미원조의 중요한 후원지로 전근지전(戰勤支前)의 중임을 맡

았다. 로전사 한명수는 바로 현지에서 입대한 중국인민지원군 정치부 선전대 34명 조선족 성원중 한명이다.

“오늘 저는 한명수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국문을 참관했습니다. 저는 많은 역사 유적을 보았고 많은 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꼭 열심히 공부하여 앞으로 국가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국가를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겠습니다.” 집안시실험소학교 5학년 정여소학생이 말했다.

압록강 국경 철도대교 옆에 세워진 당기 조각 앞에서 로전사 한명수는 현장 경찰들과 함께 당기를 향해 입당선서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로전사에게 경례!” 명령과 함께 현장의 경찰들은 로세대 위국전사에게 경례를 했고 로전사도 새시대 변경경찰들에게 회례를 했다. 부동한 세월 속에서 조국의 국문을 지켜왔고 또 지키고 있는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조국의 역사풍비를 새롭게 빛내고 ‘조국을 지키는 데 책임이 있고 조국을 지키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초심사명을 되새겼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의의가 크다. 공화국의 영웅인 항미원조 로전사를 만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께 회상하면서 많은 고무 격려를 받았다. 나는 당부를 명기하고 국문을 잘 지키며 국경을 잘 수호하고 이민관리사업에 자신의 힘을 바칠 것이다.”라고 집안출입국변방검사소 청석분소 근무 1대 부대장 조종진이 전했다.

최근년간,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와 통화변경관리지대는 집안 변경지역의 중요한 안전보장 역량으로 홍색 당수업 등 애국주의교양활동을 100여회 전개하고 동북항연 정신과 항미원조 정신을 깊이 전승, 융합하고 정신적 불씨를 안정 유지원동력으로 전환시켜 변경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사상정치적 기초를 쌓았다.

/ 정현관기자
/ 집안출입경변방검사소 맹호령

안도, ‘의료연합체 + 의료공동체’ 련동 모식으로 군중 건강 한층 보장



최근년간, 안도현은 시종 인민건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의료자원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의료연합체 + 의료공동체’ 련동 모식을 깊이 추진하고 현, 향, 촌 의료위생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군중들의 건강을 한층 보장했다.

량질의 의료자원을 기층으로 돌려 다양한 건강 수요를 만족시켰다.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장춘시 제6(심리)병원 등 병원과 의료연합체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문진, 수술, 현장교습을 진행, 연간 진료 환자수는 연인수로 5,000여명에 달하고 각종 원격 진단수는 연인수로 600여명에 달한다. ‘천현공정’(千县工程) 현병원 종합능력 제고 대상을 통해 흉통중심, 졸중중심, 상처중심, 위중임산부치료중심, 위중신생아치료중심 등 ‘5대 중심’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중의문화를 전승, 고양하고 일체화 의료예방융합을 추진했다.

국가의 중의약 진흥 발전전략을 깊이 관철, 락착하고 ‘우’로는 길림성중서의결합병원,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등 병원과 연합하여 도시의료연합체의 건립을 추동하고 ‘아래’로는 향진위생원을 통합하여 중의약 밀집형 현역의료공동체를 건립했다. 중의약문화가 ‘기관에 진입’, ‘기업에 진입’, ‘교정

/ 정현관기자

성당위 주요 지도자 조정에 관한 중앙의 결정 선포

▶ 1면에서

셋째, 과학기술혁신이란 ‘제1동력’을 돌출히 하고 전복성, 최전방성, 선도성 혁신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격려하고 포용하며 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인 융합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인재강성을 견지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인재를 남기고 인재를 유치하여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길림의 전면적인 진흥을 뒷받침할 것이다. 넷째, 개혁개방의 ‘관건적인 한가지’를 잘 사용하여 개혁을 한층 더 전면 심화시키며 신질생산력을 속박하는 막힘점을 뚫을 것이다. 기층의 창조 정신을 존중하고 대담하게 뛰어들어 크게 시도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형성하는 것을 견지할 것이다. 낱알을 안으로 향하는 자아혁명의 용기로 부단히 사업 작풍을 개선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다. 다섯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로를 견지하며 시종 인민에 복을 마련해주는 것을 최대의 지적으로 하여 군중들이 느낄 수 있고 제감할 수 있는 민생실사를 잘 틀어쥐고 해결할 것이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을 하는 습관을 키우며 제한된 돈을 발전

의 긴요한 곳에, 민생의 요긴한 곳에 쓰도록 할 것이다. 여섯째, 발전과 안전을 더욱 총괄적으로 잘하며 ‘한시도 시름놓을 수 없는’ 책임감으로 ‘3관3필수’(三管三必须)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4방책임’을 단단히 함으로써 안전책임을 가장 작은 사업단위에게 확실하게 락착시킬 것이다. 중점영역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소하며 사회관리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국가의 ‘5대 안전’을 전적으로 수호할 것이다. 지방사업 지도간부는 안전 최전선, 생태 마지노선, 경각지 마지노선, 지방정부 채무 경계선과 통계수치 품질선선 선을 견결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당규율 학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틀어쥐며 엄한 것을 숭상하고 실속있게 일하는 기풍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네가지 기층 내려가기’로 실시를 틀어쥐고 ‘4불2직’(四不两直)으로 감독검사를 틀어쥐며 ‘네가지를 놓치지 않기’로 정돈 개진을 틀어쥐면서 기층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고 력사와 인민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할 것이다.

향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성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지도간부들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

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과학적인 지도로 하고 당중앙의 결책 배치를 단호히 관철 시달하며 신심을 확고히 하고 단련 속에서 전진하며 새시대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전력 추진해야 한다.

호옥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당중앙에서 황강동지를 길림성당위 서기로 결정한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길림 진흥 발전에 대한 깊은 배려를 충분히 보여주며 길림의 지도부 건설에 대한 깊은 중시를 보여주는바 나는 전적으로 옹호하며 견결히 복종한다. 실제 행동으로 황강동지의 사업에 배합하여 성당위의 지도 아래 동지들과 함께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확고부동하게 관철 시달하고 길림 진흥 발전의 제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나갈 것이다. 솔선적으로 성당위 지도부의 단결을 수호하고 황강동지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며 계속해 변함없이 일터 직책을 잘 리행하고 제반 사업이 질서있게 맞물리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함으로써 당중앙, 국무원과 전 성 인민들에게 합격된 답안지를 바칠 것이다. 시종 습근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

신강’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현하여 사상, 정치, 행동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자각적으로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할 것이다.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인 임무를 확고히 파악하고 국가의 ‘5대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견결히 짊어질 것이다. 당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현대화 대농업을 주공 방향으로 하여 현대농업 건설의 ‘선두주자’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다. 폭설 전향 발전을 다그치고 생태 우세가 발전 우세로 전환되도록 추동할 것이다.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여 진흥 발전의 내생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목표인도, 결과방향을 견지하고 경제회복의 좋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증강할 것이다. 발전과 안전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민생실사를 고품질로 잘 처리하여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확보할 것이다.

성급 현지 지도동지들과 성급 로동지들, 성당위 위원과 후보위원들, 길림 주재 중앙 단위, 성직속 단위, 성 소속 기업, 대학교와 시(주), 장백산보호개발주요 책임동지들, 여러 민주당파 성위원회 주요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 길림일보

길림성생태환경청 검사조

통정서 미광고 오염 위험 검사

일전, 길림성생태환경청 검사조는 통정시길함풍광업과학기술유한회사 2급 환경감독관리 미광고(尾矿库)인 탑산미광고에 대한 지도검사를 전개했다.

검사조는 현장 검사와 자료 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광고 환경감독집행 검사 목록〉의 요구에 따라 삼투액 수집, 처리 시설의 규범화 여부, 미광수 등 폐수의 기준치 초과 배출 여부, 오염물 배출구 설치의 규범화 여부, 지하수 등 환경감측 등 돌출한 환경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조는 조사하면서 사업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도와 여러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미광고 환경정비시설의 운행과 관리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극단적 날씨가 많아져 미광고 오염 위험 형세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각 부문은 미광고 오염 위험에 방통제사상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제고하며 최전선 사유, 문제방향을 견지를 강화하고 미광고 오염 위험에 대한 조사, 처리를 중점 담체로 생태환경 안전의 최전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다음 단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통정분국은 이번 지도, 검사를 통해 우환조사, 우환처리, 성과심사 등 전 과정 폐쇄식 관리를 실현하고 미광고에 대한 환경감독관리 효능을 부단히 제고하게 된다.

/ 정현관기자

유가 년내 6번째 인상! ‘8원 시대’ 복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에 따르면 6월 27일 24시부터 휘발유 1톤당 210원, 디젤유는 1톤당 200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2024년 가장 최근에 6번째 가격 인상으로 된다.

관련 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으로 92호 휘발유는 리터

당 0.16원, 95호 휘발유는 리터당 0.17원, 0호 디젤유는 리터당 0.17원 인상되었다.

례를 들면 용량이 50리터인 일반 자가용에 휘발유를 모두 채울 경우 약 8원이 더 들고 160리터인 대형 트럭에 디젤유를 모두 채울 경우 약 27.2원이 더 든다.

/ 인민넷